Bishop Hee Soo Jung, President
정 희수 주재감독

THE UNITED METHODIST COUNCIL ON KOREAN MINISTRIES

Paul H. Chang, Executive Director
장 학순 사무총장

GBGM/MTE Room #1475
475 Riverside Dr.
New York, NY 10115
pchang@umcmission.org
212-870-3864(O) 870-3654(F)

연합감리교 한인목회강화협의회

Bishop Yong Jae Jun
President of Council of Bishops
Korean Methodist Church
16th FL., Methodist Building, 64-8, Taepyungro-1-ga, Jung-Gu,
Seoul 100-101, Korea

4. 22, 2014

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님께,

주 안에서 전용재 감독회장님과 기독교대한감리교회 온 성도들에게 문안드립니다. 세월호 참사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, 그리고 온 교화 위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. 연합감리교회와 온 성도들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며 비탄함 속에서 부활의 희망으로 함께 하시는 자비하신 주님의 손에 의지하며 위로와 회복을 간구합니다. 고난의 한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 가운데 한 형제가 새로 옮긴 시편의 언어를 빌어 기도 드립니다.*

여호와여, 당신께 울부짖으오니 귀를 기울이소서
환난 날에 주를 찾으며
밤새도록 두 손 들고 기도하지만
우리 마음은 위로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.

하나님을 생각해도 한숨이 나오고,
주님만 생각하는데도
마음은 더 약해지기만 합니다.
뜬눈으로 밤을 지새니, 이제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.

"웨슬리 신앙전통과 한국적 영성을 통한 온 성도의 제자화"

깊이 생각할수록,
영혼이 속으로 묻기를
"주님께서 영원히 버리신 것인가?
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인가?
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인가?
그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인가?
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인가?"
먹먹한 가슴으로 눈물만 흘립니다.

여호와여,
하지만
이제 당신 앞으로
다시 나아옵니다.
그 물 속에서,
주님께서 행하신 일,
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.

여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힌 여섯살 먹은 오빠,
친구를 살리려고 자신의 것을 양보한 고등학생,
승무원의 탈출은 맨 마지막이라며,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 뛰던 그 처자,
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을 뒤로 하고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던 선생님,
그들이 우리에게
십자가를 보여주었습니다.
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.
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.

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,
여호와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,
아무도 그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.

그 바다의 물들이 여호와를 뵈었습니다.
바다 속 깊은 물도 주님을 뵈었을 때 무서워 떨었습니다.

"웨슬리 신앙전통과 한국적 영성을 통한 온 성도의 제자화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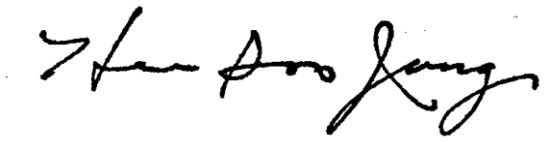
구름이 물을 쏟아 내고,
하늘이 천둥소리를 내니,
회오리바람과 함께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.

눈물이 말라버린 오늘,
우리는 그 지옥같은 물속에서
주님과 당신의 사람들이
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마음에 새깁니다.

*시편 77 편 새로 옮김 - 류계환

함께 섬기는 교회로서 연합감리교회와 한인공동체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총의 사역에 기대어 앞으로도 지속하여 동반자적인 선교를 심화하여 가기를 간구합니다. 전용재 감독회장님과 감독회의, 그리고 온 교회 지도자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서는 복음의 전령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.
주의 평화가 함께 하소서.

주 안에서,



정희수, 주재 감독
연합감리교회 한인목회강화협의회

Bishop Hee Soo Jung, Wisconsin Area
President of the UM Council on Korean Ministries
The United Methodist Church

Copies: Bishop Young Jin Cho
Bishop Jeremiah J. Park
Bishop Minerva Carcaño
Paul H. Chang